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 쉼터 어린이공원을 사례로 -

양진희* · 김해경* · 김영희* · 조중현* · 김용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the Sens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 A Case Study of 'Shim-Teo' Children's Park -

Yang, Jin-Hee* · Kim, Hai-Gyoung* · Kim, Young-Hee*

Cho, Joong-Hyun* · Kim, Yong-Ge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place attach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Shim-Teo' Children's Park in DongDaeMun-Gu in Seoul. This study used questionnair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4 to 26, 2002 from a random sampling of visitors to the park who were over twenty years old. Final analysis utilized a total of 83 samples from the 91 respondents. This survey included questions on place attachment and the sen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it showed that the more respondents had a sense of the place attachment, the more they ha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sense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eir sense of place attachment.

2. For respondents reasons not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there was a tendency that the less respondents had a sense of place attachment, the more they answered that 'they have no idea how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and 'they have no time to participate in park management'.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nse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e place attachment.

3. It was shown that the respondents sens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park management wa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nse of place attachment to the park. It was also shown that the reasons which dissuaded them from participating in urban park managements were other factors.

Key Words : Place Attachment, Citizen Participation, Urban Park Management, Children Park

1. 서론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행정 측면에 하향적 형태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주민의 공동체의식, 시민의식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고(유재원, 1995), 반면, 열린사회시민연합(<http://www.openc.or.kr>)과 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마을가꾸기와 삶터가꾸기를 추진하는 상향적인 형태도 있다. 주민참여 필요성 대두는 도시공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동안 도시공원에 있어서 관리는 현상 유지의 관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관리 전문기구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다(김영식, 1996: 90)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공원 계획 및 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김성균, 2001: <http://www.openc.or.kr>).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단순히 관리인력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지역문화 형성의 바탕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일정한 범주 안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는 공감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고 가정하여, 주민참여의 용어와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식이란 용어가 수반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공동체의식은 이름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공동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한정짓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이 공원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즉 우리 동네의 공원 혹은 나의 공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공원 혹은 우리 동네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인식과 인간 행동간의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연구함에 있어서 환경심리학적 용어로서 특정장소에 대한 인식과 인간 행동간의 관계를 주목하는 장소 귀속감(place 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의 정도에 따라 주민참여의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주민참여, 공동체의식, 장소 귀속감

그 동안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관련된 담론들은 공동체의식과 관련지어 논의가 되어 왔으나 최근의 여러 논문들(유종원, 1998; 김남선과 우룡, 1995; 김경준, 1998)은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식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도시공원에 있어서 공원관리라는 문제에 국한시켜서 주민참여의 문제를 바라볼 때, 공동체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주민참여의 문제 중에서도 공원관리와 같은 공동체 내의 지역적인 작은 활동과 뚜렷한 관계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보다는 보다 특정장소와 개인적인 경험에 주목하는 장소 귀속감과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식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 democracy)적인 형태와 기능에서부터 극히 전문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주민참여의 형태나 기능이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이규환, 1990: 31). 주민참여에 대한 많은 정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Alexander *et al.*(1975: 39)은 참여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이용자들에 의한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고, Sanoff(1992: 55)는 참여는 “모두에게 많은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Baldassari *et al.*(1980: 6)은 참여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참여는 이용자들의 활동으로부터 그들 간의 상호작용, 권력의 소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석원, 2002: 5). 국내의 경우, 아직 주민참여는 이용자들의 권력 소유보다는 이용자들의 활동 혹은 그들간의 상호작용의 수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는 공원관리에 국한한 것으로서 Alexander *et al.*의 정의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식이란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말로 쓰이고 있고,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정서적(emotive)으로 찬양적 의미를 지녔다(유종원, 1998: 354)고 했다.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바탕으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고, 한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정서가 유달리 남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국내에서 나타난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는 개인주의가 증대하고 공동체의식의 약화 및 해체를 가져와 그 실체로서의 공동체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김남선과 우룡, 1995: 94; 유종원, 1998: 54). 더욱이 오늘날 공동체의식은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점과 오늘날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은 해체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김경준, 1998: 214).

장소 귀속감은 환경심리학적 용어로서 Stokols and Shumaker(1981)는 “환경과 인간사이에서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귀속”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있

다. Altman(1992)은 “환경과 인간 행동사이에서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인지(thought, belief, knowledge)와 실제적 적용(action and/or behavior)”이라는 양면에 통합되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귀속감을 설명하였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과거 실증주의적 연구 성향이 강했던 환경심리학에서 귀속감을 인간의 감정이 독특하게 개재되는 장소인 주택, 성소(scared places) 등과 같은 특정장소에 국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방법이 다변화된 현상학적 접근으로서 최근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공원 등과 같이 귀속감의 물리적 범위를 넓혀 왔다. Burr(1995)는 관광·레크레이션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을수록 지역개발의 높은 욕구를 표출한다는 연구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귀속감과 관련해서 Mowen(1997)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공원 내 거주 주민과 공원 밖의 인근 주민들간에 귀속감의 개념적 정의와 가치수준의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점이 공원관리 정책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정인, 2000: 130-132).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귀속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도시지역의 공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특정 장소 혹은 지역의 귀속감으로 인해 공원관리에 대한 참여의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측정인자

본 연구의 집단변수로서 장소 귀속감을 측정할 수 있는 인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공원 귀속감,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에 참여, 이웃교류 등 다섯 개의 인자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측정인자는 첫째, 공원 귀속감은 ‘이 공원을 우리동네의 부분으로 인식하는가’라고 질문하여 공원에 대한 귀속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거주지의 자부심의 측정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동네에 이사를 것을 권유하고 싶다’는 질문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거주지의 애착심의 측정인자로는 ‘전근, 전세값 폭등과 같이 외부적인 사정상 이사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

다면, 계속 이 곳에서 살고 싶다'는 질문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문제해결 참여로는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반상회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질문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웃교류의 측정인자는 반상회참여 회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개인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의 수, 자녀를 맡아줄 수 있는 이웃의 수 등 4개 인자로 구성하여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웃주민과의 교류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정변수는 각기 다른 가설의 검정변수인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사와 주민참여 저해 요인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공원의 일반적인 이용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III.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지 선정과 표본추출 방법

조사대상지로는 아파트 단지내의 공원보다 일반주거지에 위치한 도시 공원이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규모는 이용자의 범위가 대개 지역주민인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위의 선정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대문구 답십리 4동 952-4에 위치한 쉼터 어린이공원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쉼터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일정 범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다. 표본은 쉼터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추출은 조사기간 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 변수의 측정

집단변수인 공원 귀속감,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역의 애착심, 문제해결 참여와 검정변수인 공원관리 참여의식은 모두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집단변수 중 이웃교류는 모두 빈도를 측정하였다. 그 외 공원이용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조사 기간은 2002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고,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 사이에 공원을 방문한 20세의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집은 총 91부를 하였고, 이중 유효 표본은 83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Rel. 10.0(SPSS Inc., 2000)으로 분석하였다. 장소 귀속감의 측정인자들의 타당성검증과 신뢰도 검증을 하였고,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식과 장소 귀속감에 대해서 통계적 요약을 하였고,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식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수가 83으로서 비교적 소규모인 관계로 평균점수 이상집단과 이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집단의 크기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인 30 미만인 경우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IV. 결과분석

1. 평가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기 위한 5개의 인자들 중 공원 귀속감,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에 참여는 모두 단일항목으로 측정되었으나 이웃교류는 다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이웃교류를 측정하기 위한 4개 인자인 반상회참여 회수,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 개인의 고민을 나누는 사람의 수, 자녀를 맡아줄 수 있는 이웃의 수 등은 빈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이를 표준화하

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4개의 인자가 이웃교류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계수는 0.72로서 일반적 기준인 0.6보다 크므로 비교적 내적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웃교류는 이 4개의 항목을 합산 평정하여 이웃교류라는 개념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기 위한 5개 인자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 이 5개 인자들은 장소 귀속감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계수는 0.75로 일반적인 기준인 0.60보다 크므로 비교적 내적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5개의 항목을 합산 평정하여 장소 귀속감이라는 개념을 측정하였다.

2. 인구학적 특성과 공원이용의 일반적 특성

쉽터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별은 여성이 약 64%, 남성이 약 36%, 이용자의 연령대는 20세 이상의 자녀를 둔 50-60세의 이용자가 응답자의 51.6%, 이용자의 직업은 주부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소득수준은 연 소득평균이 약 2천만원,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6.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다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이 43.4%, 단독주택이 26.5%, 저층아파트는 12.0%, 고층아파트는 10.8%, 기타 7.2%의 순 등이고, 거주기간은 평균 약 10년으로 나타났다.

공원이용의 일반적 사항 중 이용횟수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이 53.1%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1회 방문시 평균 체류시간은 30분-1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1%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30분 미만은 26.5%, 1-2시간은 2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43.4%인 휴식과 42.5%인 운동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 곳이 어린이 공원이지만 아이들 놀이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이용시 동반자로 가장 높은 응답은 가족과 함께(37.4%)이고, 그 다음으로 혼자서(34.9%), 친구와 함께(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이 공원은 비교적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류시간은 1시간 전후로, 주로 휴식과 운동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식과 장소 귀속감

주민참여가 가능한 공원관리 중 공원시설 관리와 이용자 관리의 총 11개 항목을 선정하여 참여의사를 질문하였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사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쓰레기 줍기, 위험한 물건 치우기, 나무, 꽃, 잔디 가꾸기, 잡초뽑기, 그리고 총괄적인 공원 관리 참여의사 등 보통이상의 참여의사를 나타낸 것들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용이한 활동들이고, 반면, 화장실 청소, 부서진 시설물 고치기, 부서진 시설물 신고, 시설물 훼손행위 신고, 이용자제도, 불량 청소년 계도 등 보통이하의 참여의사를 나타낸 것들은 참여가 어렵거나 참여에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이하의 참여의사를 나타낸 것들 중 부서진 시설물 신고, 시설물 훼손행위 신고 등은 다른 활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제의 경우 주민참여 유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사에 관한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쓰레기줍기	3.867(0.777)	2	5	83
위험한 물건 치우기	4.084(0.684)	3	5	83
나무, 꽃, 잔디 가꾸기	3.373(0.851)	2	5	83
잡초뽑기	3.157(0.956)	1	5	83
화장실 청소하기	2.138(0.978)	1	4	80
부서진 시설물 고치기	2.084(0.913)	1	4	83
부서진 시설물/ 위험물 신고하기	2.867(0.985)	1	5	83
시설물 훼손 행위 신고하기	2.892(0.884)	1	5	83
공원내 이용자 계도하기 (예: 나무를 꺾지마시오)	2.904(0.850)	1	4	83
공원내 불량청소년 계도하기	2.458(1.051)	1	4	83
지역주민이 공원관리에 참여한다면 기꺼이 참여	3.554(0.815)	2	5	83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저해 요인은 표 2와 같다. 응답자들은 주민참여 저해 요인으로 참여 방법의 무지라기보다는 주민의식이나 홍보·교육의 부족의

문제로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관리에 주민참여의 선례가 드문 국내의 실정에 비추었을 때, 응답자들이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식의 문제 혹은 홍보와 교육 등 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 저해 요인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참여방법의 무지	2.398(0.826)	1	4	83
참여시간 부족	2.902(0.897)	1	5	82
홍보·교육의 부족	3.145(0.767)	2	5	83
주민의식 부족	3.337(0.720)	2	5	83
공원 귀속감 부족	2.952(0.840)	1	5	83

쉽터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자의 장소에 대한 귀속감은 표 3과 같다.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는 5개 변수들 중 다항목으로 측정 한 이웃교류는 이것을 측정 한 4개의 인자를 평균한 값이고, 장소 귀속감은 이것들을 측정 한 5개의 변수들의 평균값을 평균한 값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모두 보통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공원 귀속감, 이웃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비교적 공원의 이용률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어 공원이라는 장소 또는 거주지역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지역에 비해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살 가능성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거주자가 많아서 젊은이들보다 이웃과 많은 유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 장소 귀속감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수
장소 귀속감	3.531(-)	-	-	82
공원에 대한 귀속감	3.988(0.634)	3	5	83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	3.386(0.641)	2	5	83
거주지에 대한 애착심	3.301(0.808)	1	5	83
거주지의 문제해결에 참여	3.108(0.884)	1	5	83
이웃교류	3.873(-)	-	-	82

4. 주민참여의식의 요인분석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식의 11개 변수를 축약할 목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것이 표 4와 같다. Varimax 회전법에 의해 3차례 반복 계산된 결과 비교적 안정적으로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요인을 각각 참여가 용이한 활동과 참여가 어려운 활동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는 쓰레기 줍기, 놀이에 위험한 물건 치우기, 나무, 꽃, 잔디 가꾸기, 잡초뽑기, 총괄적인 공원관리 참여의사 등이 속하고, 참여가 어려운 활동은 화장실 청소, 부서진 시설물 고치기, 부서진 시설물 신고, 시설물 훼손행위 신고, 이용자 계도, 불량 청소년 계도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요인은 전체분산의 71.7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사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참여가 어려운 활동	참여가 용이한 활동
쓰레기 줍기	0.031	0.850
돌, 깨진병 등 놀이에 위험한 물건 치우기	-0.057	0.834
나무, 꽃, 잔디 가꾸기	0.288	0.797
잡초뽑기	0.395	0.716
화장실 청소하기	0.879	-0.012
부서진 시설물 고치기	0.845	-0.024
부서진 시설물, 위험물 신고하기	0.829	0.043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불량한 행동하는 사람 신고하기	0.744	0.320
공원내 이용자 계도하기 (예: 나무를 꺾지마시오)	0.783	0.385
공원내 불량청소년 계도하기	0.898	0.084
지역주민이 공원관리에 참여한다면 기꺼이 참여	-0.041	0.815
고유치	4.399	3.489
공통분산(%)	39.987	31.722
누적비율(%)	38.987	71.709

5.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쉽터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이용자들을 장소 귀속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 간의 주민참여의식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은 장소 귀속감

의 측정 인자들의 응답을 평균미만과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장소 귀속감을 측정하는 5개 인자 중 공원 귀속감은 두 집단으로 구분할 때 집단의 크기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인 30 미만으로 비교에서 제외하였고,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의 참여, 이웃교류 등 4개의 인자와 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소 귀속감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차이를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1) 장소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의사 분석

장소 귀속감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의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하여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의 참여, 이웃교류와 장소 귀속감 모두는 t값이 양수로 나타나 거주지의 자부심이 많고, 거주지의 애착심이 많고, 문제해결의 참여가 높고, 이웃주민과의 교류수준이 높고, 그리고 장소 귀속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하여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의사는 장소 귀속감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 참여가 어려운 활동에 대하여 이웃교류는 t값이 음수로 이웃교류가 적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가 어려운 활동은 전체적으로 참여의사가 낮은 활동이고, 이웃교류가 적은 집단이 이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낮지만, 만일 참여한다면 사회 정의에 대한 관념적인 판단에 의하여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의사 차이는 표 6에서와 같이 참여가 어려운 활동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하여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모두에 대하

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은 학력과 거주형태가 t값이 양수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집을 소유할수록,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t값이 음수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하여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은 것에 비하여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고,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과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은 소위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의사 차이

참여의사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참여가 어려운 활동	-1.412	0.162	-0.343	0.733	0.673	0.503
참여가 용이한 활동	2.566	0.012 *	4.349	0.000 *	-5.446	0.000 *

*: p<0.05

2) 주민참여의 저해 요인 분석

장소 귀속감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 저해 요인 차이 분석은 표 7과 같다. 주민참여 저해 요인으로 가장 평균점이 높았던 주민의식 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참여가 t값이 양수로 문제해결 참여가 낮은 집단일수록 더 큰 평균값을 가지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교육의 부족에 대해서는 이웃교류가 t값이 음수로 이웃교류가 낮은 집단일수록 더 큰 평균값을 가지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장소 귀속감, 거주지의 애착심, 이웃교류가 모두 t값이 음수로 장소 귀속감이 낮고, 거주지의 애착심이 낮고, 이웃교류가 적은 집단일수록 더 큰 평균값을 가지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방법의 무지에 장소 귀속감, 거주

표 5. 장소 귀속감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의사 차이

참여의사	장소 귀속감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 참여		이웃교류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참여가 어려운 활동	-1.494	0.139	-0.683	0.496	-0.896	0.373	0.887	0.378	-3.201	0.002 *
참여가 용이한 활동	6.315	0.000 *	5.444	0.000 *	4.527	0.000 *	3.951	0.000 *	4.890	0.000 *

*: p<0.05

표 7. 장소 귀속감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 저해 요인 차이

주민참여 저해 요인	장소의 귀속감		거주지의 자부심		거주지의 애착심		문제해결에 참여		이웃교류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참여방법의 무지	-3.294	0.001 *	-2.440	0.017 *	-0.399	0.691	-1.296	0.199	-2.382	0.020 *
참여시간 부족	-2.013	0.048 *	-1.812	0.074	-2.327	0.023 *	-0.206	0.838	-2.933	0.004 *
홍보·교육의 부족	-1.984	0.051	-1.256	0.213	0.662	0.510	-0.730	0.469	-2.181	0.032 *
주민의식 부족	0.104	0.918	0.158	0.875	0.853	0.397	2.315	0.023 *	-1.116	0.268
공원 귀속감 부족	0.115	0.909	0.730	0.468	1.828	0.071	1.500	0.138	0.325	0.746

*: p<0.05

지의 자부심, 이웃교류가 모두 t값이 음수로 장소 귀속감이 낮고, 거주지의 자부심이 낮고, 이웃교류가 적은 집단일수록 더 큰 평균값을 가지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원 귀속감의 부족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소 귀속감이 낮은 집단은 주민참여의 의지가 낮고, 주민참여의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 저해 요인 차이 분석은 표 8과 같다. 주민참여 저해 요인으로 가장 평균점이 낮았던 참여시간 부족과 참여방법의 무지에 대해서만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참여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학력은 t값이 음수로 학력이 높을수록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방법의 무지에 대해서는 학력과 거주형태 모두 t값이 음수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우리동네, 지역 등 나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고 할

표 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참여집단 간 주민참여 저해 요인 차이

주민참여 저해 요인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t-값	p-값	t-값	p-값	t-값	p-값
참여방법의 무지	-2.184	0.032 *	-2.152	0.034 *	1.608	0.112
참여시간 부족	-2.945	0.004 *	-0.405	0.686	0.859	0.394
홍보·교육의 부족	-0.672	0.505	-0.744	0.459	0.291	0.772
주민의식 부족	-1.351	0.180	-0.688	0.493	0.865	0.390
공원 귀속감 부족	0.299	0.766	-1.038	0.303	0.586	0.560

*: p<0.05

수 있다. 이들은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낮기 때문에 참여방법의 무지 혹은 참여시간 부족과 같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V.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쉼터 어린이공원을 사례로 선정하여, 장소 귀속감이라는 개념을 공원 귀속감, 거주지역의 자부심, 거주지역의 애착심, 문제해결의 참여, 이웃교류 등으로 측정하였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에 따라서 주민참여의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원관리에 있어서 참여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활동은 참여가 용이한 활동이다. 총괄적인 공원 관리 참여의사는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속하는데 즉, 총괄적으로 볼 때, 공원관리에 대한 참여의사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장소 귀속감이 높고, 학력이 낮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주거기간이 길수록, 공원관리의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참여의사가 높았으며, 이들 항목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교류가 적을수록 참여가 어려운 활동에 대하여 이웃교류가 높은 집단보다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공원관리의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이웃교류가 적고, 학력이 높고, 장소 귀속감이 낮을수록

참여방법의 무지와 참여시간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고, 이들 항목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장소에 대한 귀속감이 높은 경우 공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원관리가 저조한 이유로는 장소 귀속감보다는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 사례가 드문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 향후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의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여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교적 용이한 관리 부분과 신고제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공원관리의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의식,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 등의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보다 의식의 문제 혹은 홍보와 교육의 부족과 같은 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으로서, 아직 국내의 경우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관리에 대하여 피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소 귀속감이 높을수록 참여가 용이한 활동에 대하여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저해 요인으로는 공원에 대한 귀속감이 낮아서이기 보다 다른 이유들로 나타나 공원관리에 있어서 장소 귀속감은 주민참여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차의 연구

지방자치제 이후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치성 증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 기술분야의 주민참

여에 대한 연구에는 거의 대부분 공동체의식이라는 용어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방법론들의 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연구의 일반화를 위하여 국내의 상황에 적합한 공원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기존의 문헌들에서는 주민참여를 공동체의식과 관련시켜 왔으나 본 연구는 장소 귀속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주민참여를 장소 귀속감과 관계로 파악하고자 함에 따라 변수 설정에 있어서 다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본 연구는 공원관리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식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선행적인 연구로서 주민참여의 장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인용문헌

1. 김경준(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232.
2. 김남선, 우룡(1995) 아파트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형성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0(1): 93-110.
3. 김성균(200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마당설계-서울 동작구 사당동 양지공원-. 한국조경학회지 29(3): 61-69.
4. 김영식(1996) 도시공원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 도시문제 31(336): 87-93.
5. 박석원(2002) Community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Playground-A New York City Experience-. Phd.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6. 박정인(2000) 국립공원 취락지구 주민의 귀속감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탐구적 연구-계룡산국립공원 취락지구의 사례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지 35(1): 129-138.
7. 유재원(1995)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필요성(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pp. 6-23.
8. 유종원(1998) 공동체주의의 공동체 개념과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0): 353-377.
9. 이규환(1990)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31-53.
10. Alexander, C. Silverstein, S. Angel, S. Ishikawa, S. and Abram, D.(1975) The Oregon Experi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1. Altman, I.(1992) A coceptul inquiry. In Altman, I. and Low, S. M.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Y.
 12. Baldassari, C. Hart, R. and Lockett, M.(1980) Participation. Childhood City Newsletter. eds. p. 22.
 13. Burr, S.(1995) The Rural Action Class's Receptions of Rural Tourism in Relation to Their Sense of Place.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USDA Forest Service, pp. 167-172.
 14. Graefe, Mowen A. and Randy, V.(1997) A Typology of Place Attachment and Activity Invoivement. England: Avebury.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USDA Forest Service, pp. 89-92.
 15. Sanoff, H.(1992) Integrating Programming, Evaluation and participation in Design. Aldershot, Hants.
 16. Stokols, D. and S. A. Shumaker(1981) A Transectional View of Setting. In J. Harvery. eds, People in Place. Hillside, NJ.
 17. SPSS Inc.(200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linois.
 18. <http://www.openc.or.kr>

원고접수: 2002년 8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2년 10월 28일

3인의명 심사필

부록 1. 장소의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181(1.042)	38	77	0.139
	1	0.154(0.952)	41		
어려운 활동	0	0.602(0.845)	38	77	0.000 ^b
	1	-0.566(0.799)	41		

^a: 0: 귀속감이 높은 집단; 1: 귀속감이 낮은 집단
^b: p<0.05

부록 2. 거주지 자부심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083(1.004)	37	78	0.496
	1	0.071(1.003)	43		
어려운 활동	0	0.562(0.813)	37	78	0.000 ^b
	1	-0.484(0.893)	43		

^a: 0: 거주지 자부심이 높은 집단; 1: 거주지 자부심 낮은 집단
^b: p<0.05

부록 3. 거주지 애착심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103(1.061)	39	78	0.373
	1	0.098(0.941)	41		
어려운 활동	0	0.465(0.854)	39	78	0.000 ^b
	1	-0.442(0.934)	41		

^a: 0: 거주지의 애착심이 높은 집단; 1: 거주지의 애착심이 낮은 집단
^b: p<0.05

부록 4. 문제해결 참여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128(1.077)	30	78	0.378
	1	-0.077(0.954)	50		
어려운 활동	0	0.524(0.818)	30	78	0.000 ^b
	1	-0.314(0.973)	50		

^a: 0: 문제해결 참여의사가 높은 집단; 1: 문제해결 참여의사가 낮은 집단
^b: p<0.05

부록 5. 이웃교류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372(0.902)	37	77	0.002 ^b
	1	0.313(0.989)	42		
어려운 활동	0	0.514(0.824)	37	77	0.000 ^b
	1	-0.461(0.934)	42		

^a: 0: 이웃과의 교류가 많은 집단; 1: 이웃과의 교류가 낮은 집단
^b: p<0.05

부록 6. 학력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205(1.035)	29	77	0.162
	1	0.124(0.979)	50		
어려운 활동	0	0.362(0.890)	29	77	0.012 ^b
	1	-0.220(1.014)	50		

^a: 0: 초/중학교; 1: 고등학교이상
^b: p<0.05

부록 7. 거주형태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037(1.069)	42	78	0.733
	1	0.041(0.931)	38		
어려운 활동	0	0.418(0.941)	42	78	0.000 ^b
	1	-0.461(0.858)	38		

^a: 0: 자가소유; 1: 기타
^b: p<0.05

부록 8.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참여의식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가	0	0.063(0.928)	47	78	0.503
	1	-0.090(1.104)	33		
어려운 활동	0	-0.437(0.889)	47	78	0.000 ^b
	1	0.622(0.808)	33		

^a: 0: 평균거주기간(10년)미만; 1: 평균거주기간이상
^b: p<0.05

부록 9. 장소 귀속감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100(0.709)	40	79	0.001 ^b
	1	2.667(0.846)	42		
참여시간 부족	0	2.700(0.992)	40	74	0.048 ^b
	1	3.098(0.768)	41		
홍보·교육의 부족	0	2.975(0.862)	40	72	0.051
	1	3.310(0.643)	42		
주민의식 부족	0	3.350(0.770)	40	78	0.918
	1	3.333(0.687)	42		
공원 귀속감 부족	0	2.950(0.932)	40	75	0.909
	1	2.929(0.745)	42		

^a: 0: 귀속감이 높은 집단; 1: 귀속감이 낮은 집단
^b: p<0.05

부록 10. 거주지 자부심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162(0.727)	37	81	0.017 ^b
	1	2.587(0.858)	46		
참여시간 부족	0	2.703(0.996)	37	67	0.074
	1	3.067(0.780)	45		
홍보·교육의 부족	0	3.027(0.833)	37	81	0.213
	1	3.239(0.705)	46		
주민의식 부족	0	3.351(0.753)	37	81	0.875
	1	3.326(0.701)	46		
공원 귀속감 부족	0	3.027(0.897)	37	81	0.468
	1	2.891(0.795)	46		

^a: 0: 거주지 자부심이 높은 집단; 1: 거주지 자부심이 낮은 집단
^b: p<0.05

부록 11. 거주지 애착심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359(0.903)	39	81	0.691
	1	2.432(0.759)	44		
참여시간 부족	0	2.667(0.955)	39	80	0.023 ^b
	1	3.116(0.793)	43		
홍보·교육의 부족	0	3.205(0.894)	39	69	0.510
	1	3.091(0.640)	44		
주민의식 부족	0	3.410(0.818)	39	71	0.397
	1	3.273(0.624)	44		
공원 귀속감 부족	0	3.128(0.923)	39	81	0.071
	1	2.795(0.734)	44		

^a: 0: 거주지 애착심이 높은 집단; 1: 거주지 애착심이 낮은 집단
^b: p<0,05

부록 12. 문제해결 참여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250(0.880)	32	81	0.119
	1	2.490(0.784)	51		
참여시간 부족	0	2.875(1.070)	32	51	0.838
	1	2.920(0.778)	50		
홍보·교육의 부족	0	3.063(0.878)	32	55	0.469
	1	3.196(0.693)	51		
주민의식 부족	0	3.563(0.619)	32	81	0.023 ^b
	1	3.196(0.749)	51		
공원 귀속감 부족	0	3.125(0.907)	32	81	0.138
	1	2.843(0.784)	51		

^a: 0: 문제해결 참여가 높은 집단; 1: 문제해결 참여가 낮은 집단
^b: p<0,05

부록 13. 이웃교류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162(0.688)	37	80	0.020 ^b
	1	2.578(0.892)	45		
참여시간 부족	0	2.595(0.865)	37	79	0.004 ^b
	1	3.159(0.861)	44		
홍보·교육의 부족	0	2.946(0.780)	37	80	0.032 ^b
	1	3.311(0.733)	45		
주민의식 부족	0	3.243(0.760)	37	80	0.268
	1	3.422(0.690)	45		
공원 귀속감 부족	0	2.973(0.928)	37	80	0.746
	1	2.911(0.763)	45		

^a: 0: 이웃과의 교류가 많은 집단; 1: 이웃과의 교류가 낮은 집단
^b: p<0,05

부록 14. 학력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133(0.819)	30	80	0.32 ^b
	1	2.538(0.803)	52		
참여시간 부족	0	2.533(0.860)	30	79	0.04 ^b
	1	3.118(0.864)	51		
홍보·교육의 부족	0	3.067(0.868)	30	52	0.505
	1	3.192(0.715)	52		
주민의식 부족	0	3.200(0.761)	30	80	0.180
	1	3.423(0.696)	52		
공원 귀속감 부족	0	3.000(0.830)	30	80	0.766
	1	2.942(0.850)	52		

^a: 0: 초/중학교; 1: 고등학교이상
^b: p<0,05

부록 15. 거주형태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222(0.765)	45	81	0.034 ^b
	1	2.605(0.855)	38		
참여시간 부족	0	2.867(0.991)	45	80	0.686
	1	2.946(0.780)	37		
홍보·교육의 부족	0	3.089(0.900)	45	76	0.459
	1	3.211(0.577)	38		
주민의식 부족	0	3.289(0.843)	45	76	0.493
	1	3.395(0.547)	38		
공원 귀속감 부족	0	2.867(0.968)	45	78	0.303
	1	3.053(0.665)	38		

^a: 0: 자가; 1: 기타
^b: p<0,05

부록 16. 거주기간에 따른 주민참여 저해요인 비교

변수	집단 ^a	평균(표준편차)	표본수	자유도	유의확률
참여방법의 무지	0	2.521(0.799)	48	81	0.112
	1	2.229(0.843)	35		
참여시간 부족	0	2.979(0.794)	47	62	0.394
	1	2.800(1.023)	35		
홍보·교육의 부족	0	3.167(0.663)	48	59	0.772
	1	3.114(0.900)	35		
주민의식 부족	0	3.396(0.676)	48	81	0.390
	1	3.257(0.780)	35		
공원 귀속감 부족	0	3.000(0.744)	48	62	0.560
	1	2.886(0.963)	35		

^a: 0: 평균거주기간(10년)미만; 1: 평균거주기간이상